

 <b>한국문화원</b> Korean Cultural Center, Los Angeles		<h1>보 도 자 료</h1>		 PyeongChang 2018 <sup>™</sup>	 PyeongChang 2018 <sup>™</sup> PARALYMPIC GAMES
보도일시	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 4쪽	
배포일시	2017.12.7 (목)	담 당 자	신보성(KCCLA) 323-936-3018 홍엘리(KOCCA) 323-935-5001		

## LA한국문화원, 한국콘텐츠진흥원 ‘제13회 다리어워드’ 시상식 개최



- ▶ 행사명 : 2017년 「제13회 다리어워드」 시상식
- ▶ 일시 : 2017. 12. 6(수) 18:30-21:00
- ▶ 장소 : 코리아센터 1층
- ▶ 주최 : LA한국문화원(원장 김낙중), 한국콘텐츠진흥원미국비즈니스센터(센터장 김철민)
- ▶ 첨부자료 : 행사사진
- ▶ 행사문의 : LA한국문화원 323-936-3018 문화산업담당 신보성  
한국콘텐츠진흥원 323-935-5001 과장 홍엘리

LA한국문화원(원장 김낙중)과 한국콘텐츠진흥원 미국비즈니스센터(센터장 김철민)는 제 13회 ‘다리어워드(Dari Awards)’ 수상자로 ‘올해의 인물’ - ‘David Shore’, ‘베스트 미디어 파트너십’ - ‘ABC’, ‘베스트 비즈니스 파트너십’ - ‘Netflix’, ‘올해의 한국 비즈니스’ - ‘SmartStudy’를 선정하였다.

다리어워드는 지난 1년간 한국 문화콘텐츠의 미국 시장 진출에 다리(Bridge) 역할을 한 개인, 기업, 단체를 선정해 시상하는 행사로, 2005년에 시작되어 올해로 13번째 개최되는 행사이며, ‘2017 다리어워드’ 시상식은 12.6(수) 18:30 LA 코리아센터에서 방송사, 영화·게임·음악산업 관계자, 콘텐츠 산업 투자사, 학계 인사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올해의 인물’로 선정된 ‘David Shore’는 미국의 인기 의학 드라마 <House>와 법률드라마 <Law & Order>의 기획자이며 의학 드라마 분야에서 최고의 작가로 평가 받고 있다. 또한 한국 드라마 <굿 닥터> 리메이크작인 ABC사의 <The Good Doctor> 작가로 참여함과 동시에 제작 총책임을 맡았으며, 작품 흥행의 주역으로서 한국 콘텐츠의 위상을 높이고 그 우수성을 알리는데 기여한 바 있다.

David Shore는 다리어워드 시상식에서 “올해의 인물 수상을 대단한 영광으로 생각한다. 이 작품은 문화적 배경을 떠나 모든 사람에게 공감을 줄 수 있는 휴먼스토리로, 나 또한 원작을 접했을때 큰 감동을 받았고 리메이크작을 제작할 수 있어 매우 기뻐다. 원작자인 박재범 작가와 ABC 등 The Good Doctor 제작에 참여한 모든 이들에게 감사의 말을 전하고 싶다”고 수상소감을 밝혔다 .

‘미디어 파트너십’을 수상한 ‘ABC’는 미국 3대 지상파방송사 중 하나로, SBS 드라마 <신의 선물> 리메이크작인 <Somewhere Between>, KBS2 드라마 <굿 닥터>의 리메이크작 <The Good Doctor> 등 한국 콘텐츠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리메이크하여 미국 관객들에게 소개함으로써 미국 내 한국 콘텐츠 대중화에 앞장서고 있다. 특히 <The Good

Doctor>의 첫 방송 시청률이 2.4%를 차지하여 동시간대 1위를 기록한 후, 현재까지 시청자들의 압도적인 지지를 받고 있다.

ABC의 Heather Curtis (Director, Mini-Series & Co-Productions at ABC Television Network)는 “ABC는 좋은 스토리텔링이 곧 사람들 사이의 연결고리를 만들고 하나가 되게 하는 다리 역할을 한다라고 믿기 때문에 이 상이 더욱 뜻깊으며 뛰어난 한국 콘텐츠가 아니었다면 <The Good Doctor>, <Somewhere Between>와 같은 ABC가 자랑스러워하는 작품들이 만들어지지 못했을 것이다. 이 작품들이 문화의 경계를 초월한다는 점은 한국 콘텐츠의 비전과 창의력이 얼마나 뛰어난지 보여주며, ABC는 앞으로도 한국 콘텐츠와 강한 연대를 이어나가겠다.” 고 수상소감을 말했다.

‘비즈니스 파트너십’상을 수상한 ‘Netflix’는 1997년 캘리포니아에서 설립된 미디어 기업으로, 스트리밍 미디어 플랫폼 기반의 다양한 영화, TV 프로덕션 콘텐츠를 제작 및 제공하며, 전세계 유료회원 5,700만명을 보유한 글로벌 미디어 기업이다. 2011년 6월부터 <꽃보다 남자>, <장난스런 키스> 등의 한국드라마를 서비스하였으며, 봉준호 감독 작품 <옥자>의 제작, 투자 및 배급을 맡아 한국 영화 콘텐츠가 전 세계 영화 관객들에게 알려지게 하는데 공을 세운 바 있다. 뿐만 아니라 최근 글로벌 서바이벌 프로그램인 <비스트 마스터>에 한국인 MC들을 섭외하여 지난 2월부터 방송하였으며, 배두나 등 한국배우가 등장하는 <센스8>의 시즌2의 서울 제작촬영 또한 예정되어 있다.

“옥자는 벅플렉스에 매우 특별한 작품이며 제작에 참여한 모든 스태프에게 감사드린다. 오랫동안 팬이었던 봉준호 감독과 함께 작품을 할 수 있어 크나큰 영광이었으며 옥자 개봉 이후 미국 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얻은 뜨거운 반응에 대해 매우 자랑스럽고 기쁘게 생각한다”고 Collin Creighton (Director of Original Film, 옥자 제작 및 배급담당)이 수상소감을 밝혔다.

‘올해의 한국 기업’으로 선정된 ‘SmartStudy’는 2010년 설립 이래 유아동 교육 콘텐츠, 게임과 애니메이션을 제작 및 유통해온 글로벌 콘텐츠 전문기업이다. 대표적인 유아용 콘텐츠 <핑크퐁>의 유튜브 채널은 영어 채널 구독자 100만명 이상을 보유하고 있으며 그외

한국어·중국어·일본어·스페인어 등 5개 언어 채널을 운영하고 있다. 2016년 국내 유튜브 인기 영상 부문 1위를 차지하기도 했으며, 핑크퐁 모바일 앱은 미국과 중국을 비롯한 164개국의 애플, 아마존, 구글 등 앱 마켓에서 누적 1억5000만 다운로드를 기록, 세계 112개국에서 교육 카테고리 1위에 등극하여 향후 글로벌 키즈 콘텐츠로서의 성장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스마트 스터디의 윤승현 마케팅 매니저는 수상소감으로, “우리기업의 가장 큰 시장중에 하나인 미국에서 올해의 한국 비지니스상을 수상하게 된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한다. 스마트 스터디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이자 원동력은 ‘재미’이며 앞으로 업계에 영감이 될수 있도록 좋은 콘텐츠를 개발하려는 노력을 멈추지 않을것이다.” 라고 말했다.

LA한국문화원 김낙중 원장은 “미국내 대형 지상파 방송사 및 저명한 방송 기획자들이 한국 콘텐츠를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리메이크하고, 이것이 전국적 흥행으로 이어졌다는 사실은 한국 콘텐츠의 우수성과 글로벌 콘텐츠로서의 경쟁력 및 발전가능성을 확인시켜주어 의미하는 바가 매우 크다.”고 밝혔다.

한국콘텐츠진흥원 미국비즈니스센터 김철민 센터장은 “최근 미국 시장에 한국 콘텐츠 진출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고, 미국 내 한류팬들로부터 꾸준한 사랑을 받고 있다”라고 말하고, “앞으로 메이저 방송사 및 OTT 플랫폼과의 전략적 제휴를 통해서 좀 더 많은 한국 콘텐츠가 미국 시장에 진출할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붙임: 다리어워드 사진자료